

# 이덕무의 <사소절>에 나타난 여성인식

Recognition of Women Presented in Deokmoo Lee's *Sasojeol*

최숙인(교양국어)

Sook-In Choi(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Key Words: 이덕무(Deokmoo Lee), 사소절(*Sasojeol*), 부의(Female Courtesy), 천존지비  
(“noble-sky-and-humble-land” theory), 이상적 여성상(the ideal woman), 여성교육(women education),

ABSTRACT: Deokmoo Lee (1741-1793) in late Joseon Dynasty wrote many articles regarding women. Among his articles, *Sasojeol* emphasized that scholars should be well-mannered in any trivial matters of daily life in order to be of good behavior. “Female Courtesy” in which Deokmoo Lee’s point of views on women were clearly manifested, is a very valuable part of *Sasojeol* since it is an educational article for women written by a man. *Sasojeol* is an important clue for understanding of the custom and women’s position in the society of the time.

In part 2 of this paper, Lee’s philosophy of life based on the scholastic naivety and principle, and the purpose of writing *Sasojeol* are examined. In part 3, he showed his new cognizance of women criticizing a figment of “noble-sky-and-humble-land” theory which meant that the sky, a man, is high and novel while the land, a woman, is low and humble. His attitude was progressive because he thought men and women are equal in an androcentric society. Deokmoo Lee highlighted needs for women education and their roles in a family in the transient period between the societies of middle age and modern age. That is, if necessary, a woman, though she is a scholar’s wife, should support her family through working outside home. The ideal woman Lee wanted to describe in *Sasojeol* is the one who is active in coping with her environment as well as sincere and frug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understanding of women in Deokmoo Lee’s writing based on recognition of women presented in *Sasojeol*.

## 1. 머리말

조선 후기 정조시대 사가 중의 한 사람인 이덕무(李德懋, 1741-1793)는 종실 무림군(武林君)의 후예 이성호(李聖浩)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덕무의 아버지인 이성호가 강계도호부사를 지낸 조부 이필익(李必益)의 서자였기 때문에, 이덕무는 평생 서얼이라는 신분적 제약과 한계를 경험할 수 밖에 없었다. 자녀로는 아들 광규(光葵)와 딸 2명이 있었다. 그리고 조선조 말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를 저술한 이규경(李圭景)이 그의 손자이다. 이덕무의 자는 명숙(明淑), 무관(懋官), 호는 형암(炯菴), 청장관(靑莊館), 선굴당(蟬橋堂), 동방일사(東方一士) 등이었다. 이 중 청장은 강호에 살면서 아무 영위함이 없이 그저 제 앞을 지나가는 고기만을 먹고 사는 신천옹이라고도 불리는 청렴한 새라는 뜻으로, 청조 연행시 반정균(潘庭筠)이 ‘청장관’이라고 붙여주었다. ‘청장’이란 의미는 이덕무의 성격을 단적으로 상징한 것이다.

이덕무는 거의 독학으로 많은 서적들을 섭렵하였다. 그는 1776년 이덕무는 39세의 나이로 규장각 외각 검서관이 되어, 유득공, 박제가, 서이수와 함께 사검서로 활약하였다. 그리고 1777년 서장관 심염조를 따라 연경으로 가서 두루 건문을 넓혔고 특히 반정균과의 교유가 깊었다. 당대 청조 제일의 문사인 반정균, 이조원은 이덕무를 비롯한 사가 시집인 <전주사가시(箋註四家詩)>에서도 이들 시의 품격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는 비록 53세의 나이로 단명하였지만, 그의 학식의 깊이

는 정조가 이덕무의 <성시전도(城市全圖)>백운시(百韻詩)를 보고 ‘아(雅)’라고 평한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것을 계기로 이덕무는 호를 ‘아정’으로 하였다. 특히 적성현감 재임 중에는(44세~49세) 중에는 그 치적이 높이 인정되어 근무평정에 해당하는 ‘십고(十考)’의 감사 고과에서 모두 최고의 평가를 받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았다. 또 이덕무의 학문에 대한 정조의 총애는 이덕무 사후 3년에 내탕금을 내어 아들 광규(光葵)로 하여금 <아정유고>8권을 간행하게 하였다.

이덕무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지금까지 실학파의 이용후생적 인물로 규정되어 왔고, 그의 시 작품들에 대한 본질적 연구들도 있다.<sup>1)</sup> 또한 그의 <사소절(士小節)>에 대한 교육학적 접근이 단편적으로 보이고 있다.<sup>2)</sup> 이덕무의 글 속에는 연암그룹 문사 중 유난히 여성에 대한 관심과 언급이 많다. 이덕무는 조선 후기 사가 중에서도 특히 여성에 대한 기록을 다양하게 보이고 있다. 시로는 <향랑시 병서(香娘詩 并序)>, 전으로는 <양열녀전(兩烈女傳)>,<혜녀전(慧女傳)>,<은애전(銀愛傳)>,<김신부부전(金申夫婦傳)> 등이 있고, 제시, 제문으로는 딸을 매장하고 쓴 제시<예녀(瘞女)>,<아랫누이 서처에게 고하는 제문(祭妹徐妻文)> 등, 그리고 단편적으로 ‘여자가 남자의 벼슬을 하다’, ‘풍수술에 밝은 부인’ 등에 대한 기록이 있다.

특히 <사소절>은 선비의 바른 몸가짐을 생활 속의 작은 예절로 지킬 것을 기술하고 있다. 그 중 <부의(婦儀)>편은 남성이 저술한 여성교육서란 점에서 이덕무의 여성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와 같이 이덕무의 여성에 대한 관심은 <열녀전>에서부터 <사소절> ‘부의’편의 여성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덕무가 지닌 총체적인 여성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소절>에 대한 연구를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박지원을 비롯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여성관을 조망하고자 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우선, <사소절>에 나타난 이덕무의 여성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덕무의 인생관과 <사소절>의 창작목적

### 2.1. 이덕무의 인생관

이덕무는 평소 선비로서의 본분에 충실한 선비로, 무관에게 선비의 본분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집에서는 효도하고 밖에서는 어른에게 공경하며,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글을 읽는 것뿐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그의 선비에 대한 견해는 그의 서얼이라는 신분적 한계에 기인하기도

1) 송준호,1979,“선비정신의 시학,”<민족문화>5집, 민족문화추진회.

\_\_\_\_\_,1979,“아정 이덕무의 서정양식,” <새국어교육> 29,30합집,한국교육학회.

\_\_\_\_\_,1987,“조선조 후기 사가시에 있어서 실학사상의 검토,” 조선조 후기문학과 실학사상, 정음사,서울.

정양완,1979,“이덕무 시의 회화성에 대한 일소고,” <한국한문학연구>3,4합집, 한국한문학회.

이혜순,1987,“이덕무의 <입연기>소고”, 조선조 후기문학과 실학사상, 정음사, 서울.

최숙인,1989,“조선조 후기문학에 나타난 회화성 연구-연암그룹을 중심으로”,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최신호,1990,“이덕무의 문학에 있어서의 형사와 사의문제,<고전문학연구>5집,한국고전문학 연구회.

이화형,1994, 이덕무의 문학연구, 집문당, 서울. 등의 연구가 있다.

2) 한기연, 1973, “사소절”, 한국사상과 교육, 일조각, 서울.

유봉호, 1975, “이덕무의 교육사상과 아동교육론”, <논총>26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_\_\_\_\_, 1977, “<사소절>연구”,<논총>28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_\_\_\_\_, 1978, “이덕무의 부녀교육론,” <논총>32집,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이상교, 1983, “<내훈>과 <사소절>을 통해서 본 조선시대 여성교육내용의 일연구,”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김진백, 1991, “<사소절>연구,”계명대 석사학위논문.

했지만, 평소 소박하고 원리원칙에 입각한 그의 인생관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덕무의 인품에 대하여 이서구는 <묘지명>에서 ‘청렴 결백하고 박식 단아한 선비’로, “곡례와 소학의 가르친 뜻을 취하여 사소절 3편을 지어 자신의 몸을 수양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서구는 다방면에 박식하며, 고상한 인품을 지닌 이덕무를 두고 품행, 식견, 박문강기(博聞強記), 문예 순으로 평가하고 있다.<sup>3)</sup> 윤행임은 묘갈명에서 이덕무의 인품에 대하여 “고결한 선비는 누구던가? 이덕무 그 사람이니 내가 명을 지음에 부끄러움이 없도다.”<sup>4)</sup>라고 했다. 이러한 기록으로 이덕무의 맑고 고결한 삶의 자세가 드러나고 있다. 또 박지원은 이덕무의 사람됨을 “곧고 개결한 조행, 분명하고 투철한 지식, 익숙하고 해박한 문견, 온순하고 단아하고 소탈하고 시원스러운 용모와 말씨”를 지닌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sup>5)</sup>

이덕무의 인생관이 형성된 가정교육의 일단은 아래의 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나의 가정은 순박하다. 아버님께서 나를 가르치되, 매를 때리거나 꾸짖지 않으셨다. 그리고 밖의 스승에게 말기지도 않고 가정에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한편 외물(外物)에 끌리는 것을 금지했을 뿐이다. 그것은 내가 체질이 연약하므로 나쁜 것을 감히 하지 못하고 성품이 조밀하므로 혼계를 감히 어기지 못하기 때문이요, 자질이 아름다와 학문에 뜻을 가진 자라고 해서가 아니었다.(〈사소절〉서문)

이덕무의 아들 이광규는 ‘선고부군의 유사(先考府君遺事)’에서 이덕무의 생애와 고매한 인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덕무는 영조 18년(1741년) 6월11일 한성 중부 관인방 대사동(지금의 인사동) 부근에 있는 본가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특이한 자질이 있었고, 성품은 단정하고 우아하였으며, “3살 때 이웃의 창기가 돈 한 푼을 주자 바로 땅에 던지며 더럽다고 했는데, 그 돈이 빛나가서 갓신 위에 떨어지자 수건으로 신을 닦을 정도”로 성품이 깨끗했다고 한다. 그리고 겨우 6,7세에 능히 글을 짓고, 책 읽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한번은 집안 사람들이 그가 하루 종일 보이지 않자 간 곳을 몰라 사방을 찾아다니다가 저물녘에야 내청 벽 뒤에 쌓여있는 풀더미 위에서 그를 찾았는데 그는 거기서 벽에 발린 고서를 탐내서 보다가 해가 저문 줄도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끼니를 잊고 공부함은 물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조용한 곳에 앉아서 깊이 생각하곤 했으며, 자라면서 독지역학하고 박학강기하였으며 무릇 세간의 화리, 성색, 완호, 기예 따위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문장을 만들 때는 먼저 옛사람의 글을 찾아 참고하되 그것을 답습하거나, 헛된 말을 하지 않고, 일자일구라도 다 정리에 꺾근하도록 진경을 묘사하여, 편마다 묘가 극진하여 읽어볼만 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가난한 생활 중에서도 공부열심이어서 읽은 책이 수 만권이 넘었고 책을 초해 준 것도 수 백권이 되었다고 한다.(〈간본 아정유고〉)

이와 같은 행적으로 그는 천성적으로 학문을 좋아하며, 이서구의 평처럼 ‘청렴 개결하고 박식 단아한 선비’로 평가할 수 있다.

## 2.2. <사소절>의 창작목적

<사소절>은 남성이 지은 여성교훈서로 부녀자의 생활을 실제로 엿본 듯 자세히 기록하고 실학자답게 실생활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윤행임은 <묘갈명>에서 이덕무의 저서는 12종이 있는데, “그 중 <사소절>은 자신을 수양하고 남을 다스리는 방법이 거의 수천마디의 말이라, 학궁(學

3) <간본 아정유고> 권8, 부록, 묘지명.

4) “高士謂誰李懋官 我作銘詩無媿顏”, <간본 아정유고> 권8, 부록, 묘갈명

5) 박지원, 이덕무 ‘행장’, <간본 아정유고> 제8권, 부록.

宮)에 진열할 만하다.”라고 본고의 연구 대상인 <사소절>에 대하여 격찬하고 있다.

이덕무가 저술한 <사소절> 8책은 사전(士典),부의(婦儀),동규(童規)의 세편으로 총92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사전(士典)은 자신을 깨우쳐 되도록 허물을 적게 할 목적으로, 부의(婦儀)는 내집 부인을 경계하기 위하여, 동규(童規)는 자제들을 훈계하기 위한 의도로 찬술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사소절 서(士小節序)>에서 그가 <사소절>을 찬술한 동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나는 대개 작은 예절을 잘 살피서 되도록 허물을 적게 하려고 하였으나, 돌이켜보면 잘 되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사소한 예절에는 구속을 받지 않는다.”하는데, 나는 일찍이 경전(經傳)의 뜻에 위배되는 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서경(書經)>에 말하기를 ‘미세한 행실을 조심하지 않으면 마침내 내 큰 덕을 그르치게 된다’라고 하였는데, 미세한 행실은 곧 작은 예절이다.<사소절>서문)

이와 같이 사소한 예절조차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그의 투철한 윤리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상서대전(尙書大傳)>에, “공경(公卿)대부(大夫)원사(元士)의 적자(適子)는 13세가 되면 비로소 소학(小學)에 들어가 작은 예절을 견습하고 작은 의리를 실천하며, 20세가 되면 대학에 들어가 큰 예절을 견습하고 큰 의리를 실천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덕무는 작은 예절을 닦지 않고서 능히 큰 의리를 실천하는 자를 보지 못하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논어(論語)>에 실린 향당편(鄉黨篇)이나 관씨(管氏)가 기록한 제자직(弟子職)은 모두 작은 예절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작은 예절에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멋대로 행해지자 선비들은 염려하고 꺼리는 생각이 없어졌고, 주자(朱子)는 이를 걱정하여 <소학(小學)>이란 책을 저술하였다는 것이다. 입교(立教)와 명륜(明倫)에서 심술(心術)과 위의(威儀)와 의복과 음식의 예절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작은 예절을 갖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덕무도 일찍이 <소학>을 삼가 읽어 그를 준행했지만, 사회와 풍속의 변화에 적합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보았다.<소학>을 당대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활 속의 작은 예절을 지키기 위하여 새롭게 <사소절>을 짓고 이를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주자보다 6, 7백 년 후에 태어나 궁벽한 고을에서 살고 있을 뿐더러, 고급이 변천하고 풍속이 일정하지 않으며 습기와 습관과 기질이 더욱 변했음을 간파한다. 그리고 이덕무 자신을 반성해 볼 때, 작은 예절에 있어서 잘 실천하지 못할 것이 10에 7, 8이요, 자득해서 잘 행할 것이 겨우 10에 2, 3 정도라고 파악했다. 즉 이덕무 자신이 작은 예절을 닦지 못하고 집안 사람들에게 본받게 하지 못함을 늘 염려해왔고, 그래서 그것을 염려한 끝에 모든 것을 <사소절>에 적되 번복을 피하지 않고 세세한 것을 지워버리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사소절>의 창작목적은 옛날 현인이 남긴 교훈을 이끌어 잠경(箴警)으로 갖추고, 근래에 있던 지금 사람의 사실을 적어서 보고 느끼게 함이라는 점을 밝힌다. 또 풍속을 바로잡고 남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정의 법칙으로 삼기 위함’일 뿐이라고 소박한 저술 동기를 드러내고 있다. 또 그 주된 내용을 전대에 간행된 <내훈>은 <소학>에서 많이 뽑고 있으나, <사소절> ‘부의’편에서는 <열녀전>,<전고열녀전>,<시경>,<주역>,<예기> 등 다양하게 인용되고 있다. 그리고 명가, 명훈의 인용사례도 <내훈>은 사마온공의 말을 많이 인용하고 있으나,<사소절>‘부의’편은 우리나라의 인물인 퇴계, 율곡과 형암 자신의 경우와 견해를 열거하고 있다. 고전을 참조하되 주체적인 가치관에 입각하여 <사소절>을 저술한 것이다.

### 3.생활 속의 작은 예절 <사소절>에 나타난 평등의식과 한계

### 3.1. 천존지비설의 허구와 여성에 대한 인식태도

이덕무의 여성인식을 고찰하기 위하여, <사소절>에 나타난 언급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남녀, 특히 부부 사이의 관계 설정에 대하여 기존의 가치관인 천존지비, 남존여비의 사회적 병폐를 지적하고 있다.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하는 까닭은 남편은 '천존지비(天尊地卑)'의 설을 지키어 스스로 높은 체 하여 아내를 억눌러 꿈쩍 못하게 하고, 아내는 '제체(齊體)'의 의의를 지키어 '나나 저나 동등한데 무슨 굽힐 일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데서 연유할 뿐이다.

평시 서로 사이 좋게 지낼 때에는 반드시 이렇지 않을 것이나, 조금만 불화가 생기면 욕설이 분분하고 각기 자존심을 다 가져 예경(禮敬)을 잃으니, 자못 하늘과 땅이 비록 높고 낮으나 만물을 화육(化育)하는 공은 동일하다는 것을 모른다. 대저 부부는 비록 제체라 하나 강유(剛柔)의 분수는 어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평상시에 친압하여 서로 공경하고 조심하지 않은 때문이다. (<사소절>제3, '사전'3, 인륜)

이와 같이 이덕무는 비록 남성측의 입장이지만 천존지비설을 근간으로 하여 여성을 억압하는 당시의 사회적 모순상을 적나라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여성의 입장에서 오히려 '나나 저나 동등한데 무슨 굽힐 일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부부관계의 이면적 실상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내훈>에서 "남편은 아내의 하늘이니, 당연히 공경하여 섬기며---오직 순종할 줄 알아라. 잠깐도 감히 거스리지 말지니---남편이 심히 화를 내거든 기꺼이 다시 간하여 비록 대로 만든 채찍을 맞을지라도 어찌 잠깐이라도 원망하여 애태우리오."(<내훈> 중 '부부장')라고 거론한, 여성과 남성, 부부관계의 인식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부의 관계 설정을 <내훈>은 일방적으로 부인만의 순종을 강조한데 비해, <사소절>은 부부간의 상호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또 이덕무는 여성의 내면의식까지 인식하고 있고, 남녀관계의 표면적 설정관계뿐만 아니라, 밖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이면의 실제적 진실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남녀관계, 부부관계에 대하여 진보적이고 평등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은 그의 견해는 "조금만 불화가 생기면 욕설이 분분하고 각기 자존심을 다 가져 예경(禮敬)을 잃으니,"라고 하여 남성의 입장뿐만 아니라 여성의 입장에서든 마찬가지라는 현실인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자못 하늘과 땅이 비록 높고 낮으나 만물을 화육(化育)하는 공은 동일하다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여 기본적으로 남녀의 입장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을 배우자로 선택할 때의 기준도 <내훈>은 시부모에 대한 '효행'을 우선시하나, <사소절>은 가족에 대한 '덕행'을 우선시한 점은 그의 진보적인 여성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그는 여성의 본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심지어 노둔한 남자에 비하여 재주와 성품이 슬기롭고 총명한 자가 많다고 평가하고 있다.

부녀자에게, 사람의 성품은 본래 착한데 다만 기질에 구애되고 물욕에 가리어 악에 빠지는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지만, 만일 바로잡고 닦아서 그 본성을 회복하면 현숙(賢淑)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줄 것이다. 대개 부녀자 중에는 재주와 성품이 슬기롭고 총명한 자가 많으므로 쉽게 알아듣고 잘 감동하니, 노둔한 남자에 비하여 그 공효가 어찌 빠르지 않겠는가? 번거로운 말은 하지 말고 그 요점만 알게 할 뿐이다. (<사소절>제6, '부의'1, 성행)

뿐만 아니라 이덕무는 남존여비에 대한 기존의 보편화된 가치관의 폐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습속이 각박하여 딸을 천하게 여기고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데, 남녀가 비록 이성은 다르나 한 핏줄에서 태어난 것이다. 천륜의 사랑이야 어찌 후하고 박함이 있겠는가? 다만 세속에서 딸을 시집보내자면 혼수를 마련하느라 많은 재물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딸을 낳으면 집을 망칠 징조라 생각하고 어린 딸이 죽으면 사람들 중에는 더러 얼마의 돈을 벌었다는 말로 위로하는 자도 있다. 우리가 이로 하여 땅에 떨어지니 너무도 한심스럽다.<사소절>제3, '사전'3, 인륜)

당대의 습속상 딸은 시집보낼 혼수 비용이 많이 들므로 딸을 기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혼수도 검소하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생일날 신부에게 성대하게 음식을 차려오게 하고는, 친족이나 손님들에게 사랑하는 것은 잔학하고 인자하지 못한 처사에 가깝다고 그는 통탄한다. 며느리인 여성과 시부모와의 관계설정도 <내훈>은 며느리의 '공경과 순종'만을 강조한데 비하여, <사소절>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근본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의 결과 이덕무는 비록 남녀가 각각 성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인간성의 측면에서는 평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처가와외의 관계 설정도 장인은 사위의 가정 일을 간여해서는 안 되고, 사위 또한 장인의 가정일을 간여해서는 안 되며, 양자를 간 사람은 생가(生家)의 가정 일을 간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일 그 집안을 주관할 자가 없으면 보살피는 것이 좋다고 그는 강조한다. 당시로서는 꽤 진보한 가치관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평등에 입각한 그의 가치관은 처가의 식구들에 대하여, 세상에는 순후한 풍속이 없어 외숙(外叔)과 장인(丈人)을 알보는 경향도 있는데, 외숙은 바로 어머니의 향렬이고 장인은 곧 아버지와 대등한 분임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그분들을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

또한 부부간의 성생활과 예의의 관계에 대하여 “부부 사이에 잠자리에서 흔히 정욕을 삼가지 않아 그 위의를 잃으며, 반드시 남편은 화순하면서 의리로 제어하고, 아내는 순종하면서 바른 도리로 받아들여야만 집안일이 잘 다스려질 수 있다.”는 율곡(栗谷)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남편은 모름지기 아내와 서로 경계하여 종전 버릇을 반드시 버리고 점차 예법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이 옳으며, 아내가 만일 남편의 발언과 몸가짐이 한결같이 올바름을 본다면 반드시 점차 서로 믿고 순종할 것을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을 인식하는 문제에 있어서 분명 그의 한계는 있다. 이덕무는 “대저 부부는 비록 체체라 하나 강유(剛柔)의 분수는 어겨서는 안 된다.”고 하여, 남녀간의 ‘강유의 분수’라는 기본 인식의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대 사회에서 능력있는 여성에 대한 인식은 “아내가 재주와 지혜가 있더라도 남에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당대 부인들의 문제점을 “옛날의 부인들은 남편이 과오를 범하더라도 올바른 도리로 권하기도 하고 깨우쳐 경계하기도 해서 남편이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였는데, 오늘날의 부인들은 남편이 과오를 범하지 않더라도 미혹하기도 하고 충동하기도 해서 남편이 과오를 범하게 한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더욱이 여성의 역할과 자녀와 연관성에 대하여 “부인이 음덕(陰德)을 쌓으면 자녀들이 번창한다. 시험삼아 보면, 자녀들이 요사(夭死)하는 것은 오로지 부인의 악독함에서 연유한다.”라고 한 것은 그의 여성에 대한 지나친 부담과 단견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봉당정치, 문벌, 벼슬 등에 대한 대사회적 관심을 갖는 것은 ‘참으로 집안 일을 어지럽히는 것’으로, 나아가 여성이 바깥 일에 참견할 것을 우려한다. 이는 <서경(書經)>에,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망한다.” 하고, <시경(詩經)>에, “부인이 말이 많은 것은 화란(禍亂)의 계계로다.”라고 경계한 이유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여성의 사회적 관심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여전히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당대 사회에서 부당한 사회적 편견에 처한 소수계층인 서

얼, 노비의 사회적 처우 개선과 축첩제도에 대한 문제점 인식과 맞물려 있다. 서얼로서의 신분적 제약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간파하여 그 자신을 포함하여 당대 서얼들이 겪어야만 하는 사회적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저 우리나라의 서류는 국가에서 출세를 크게 금하고, 종족에서도 크게 욕되게 여긴 바이며, 중사들은 함께 말하기를 부끄러워 하고, 하류들은 마구 나무라니 거의 사람 축에 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일세. 그래서 서류 중에 어진 자는 욕이나 먹고, 약한 자는 죄에 걸리기 십상이니 행동하기가 또한 어렵구려.(〈아정유고〉 권8, '族姪復初')

서족을 업신여기는 것은 오랑캐의 풍습이다. 아무리 서출이라도 선조의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은 자손인데 업신여겨서 되겠는가? 심지어 어린애들이 머리가 하얀 조숙항렬을 희롱하여 때리기까지 하는데, 어찌 반성할 일이 아니겠는가?(〈사소절〉제3, '사전'3, 인륜)

이덕무는 적서관계에 대하여 인간적인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는 상호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적서의 문제와 언제나 맞물려 있는 처첩의 문제에 대하여 이덕무는 꼭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여색을 탐하는 것이라고 단정하며, 이로 인한 정처를 핍박하는 폐해를 매우 슬픈 것으로 파악한다. 그 어쩔 수 없는 경우란 “처(妻)가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또는 폐질(廢疾)이나 죄가 있어서 버렸거나 죽거나 해서 음식을 주관할 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주인과 노비 사이의 상하 인륜관계의 원만한 유지를 위하여 노비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거친 언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여 인도주의적인 일면을 보인다. 따라서 “착한 말을 들으면 신분의 비천을 따지지 말고 복종해야 하고, 과실이 있으면 조금도 기탄 없이 고쳐야된다(〈사소절〉, 사전1, 성행)”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견해를 살펴보면 ‘울곧은 선비다운 선비’, ‘휴머니스트로’서의 자세를 발견하게 된다.

### 3.2. 이상적인 여성상의 구현과 여성교육의 필요성

이덕무는 이상적 여성상으로 먼저 부녀자가 갖추어야 할 성품과 행실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여성의 덕목을 ‘정숙과 검소’, ‘효순과 화목’으로 파악하고 있다.

먼저 이상적인 여성이 갖추어야 할 태도는 “부드럽고 정숙함은 부인의 덕이요, 부지런하고 검소함은 부인의 복이다.”(부의1-성행) 라는 점을 강조 한다. 그리고 <예기(禮記)> ‘혼의(昏義)’에, 부인의 도리를 “부인으로서 효순해 한다. 먼저 시부모에게 효순하고 가족에게 화목하고서야 남편에게 적합한 배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길쌈을 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그러므로 부인이 효순해야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해야 집안이 오래 창성할 수 있다.” 고 하였다. 그 요점은 효순과 화목인데, 효순에는 모든 덕이 모이고, 화목에는 온갖 상서가 집중된다고 보고 있다. 이덕무는 가정에서의 부인이 지켜야 할 행동의 덕목을 공순과 화목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이덕무가 꿈고 있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고전 속에서 한(漢)나라 육속(陸績)의 어머니, 명(明) 말기 손패(孫珮)의 아내 진씨(陳氏), 송(宋) 장후(章侯)의 아내 응씨(應氏), 송(宋) 진안절(陳安節)의 아내 왕씨(王氏) 등 네명을 거론하고 있다. 우선 육속의 어머니는 고기를 자를 때에는 고기 토막을 네모 반듯하게 자르고, 파를 자를 때에는 길이가 자로 켜 것처럼 잘랐으니, 이 한 가지 일로 미루어보더라도 그의 행동거지와 위위가 ‘질서 정연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두번 째 거론되는 명나라 손패의 아내 진씨는 아들이 없었지만, 시부모를 공손하게 섬기고 첩인 하씨와 화목하게

지낸 인물로 그려진다. 또 동서와 친 동기간 처럼 화목하며, 난리 때에도 절개를 지킨 인물로 송나라 장후의 아내 응씨와 동서 주씨의 예를 들고 있다. 그리고 시가를 부흥시킨 인물로 송나라 진안 절의 아내 왕씨를 본받을 만한 인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이상적 여성상으로 퇴계 이황의 어머니인 박씨부인을 거론하면서, 성품이 유순하고, 삶의 자세가 근면하며, 올바른 자녀교육을 실천하는 분으로 파악하고 있다. 퇴계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작고하신 어머니 정부인(貞夫人) 박씨(朴氏)는 성품이 아름답고 유순하였는데, 우리 선인에게 시집와 계실(繼室)이 되셨다. 선인께서 돌아가시자 정부인께서는, 아들은 많은데 일찍 과부가 되었으므로 장차 집안을 능히 지탱하지 못할 것을 크게 염려하시고, 드디어 아들딸을 결혼시킨 다음, 농사 짓고 누에 치는 일에 더욱 힘쓰셨다.

그리고 여러 아들이 점점 자라자 멀고 가까운 곳에 가서 글을 배우게 하고, 매양 훈계를 가하시어, 문예를 일삼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 몸가짐을 잘하고 행실을 삼가는 것에 중점을 두셨으며, 사물을 이끌어서 비유하고 일을 들어서 가르치는 등 일찍이 친절하고 자상하지 아니함이 없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항시 과부의 아들은 교양이 없다고 비방하니, 너희들이 공부에 백배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기쁨을 면하겠느냐?'(<사소절>제6, '부의'2, 교육)

더욱이 부인의 행실은 조용하고 온화하여 혁혁하게 착함을 한다는 이름이 바깥 사람들에게 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속에서 이른바 재능이 있다는 부인은 반드시 바깥 일을 간여하는 폐단이 없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덕무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구현하는 서술방식으로 부정적인 여성상과의 대비를 통하여 서술하고 있다. 여성으로서 본분에 넘친 여인으로, 노(魯) 나라 목강(繆姜)과 위(衛) 나라의 남자(南子)의 예를 들어 경계하고 있다. 그는 '부정적 여인상'으로 표독스런 부인은 한 가지의 조그마한 분한 일이 있으면 원한(怨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울어 대고, 울어 대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통곡하며, 심지어는 손바닥을 치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늘에 호소하고 귀신에 저주하는 등 못할 것이 없기까지 하며, 자신은 그런 여성을 많이 보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일은 오로지 가장이 나약하여 잘 교도하지 못해서 그 표독함을 길러놓았기 때문이며, 그런 까닭에 속담에, "자식은 어릴 때에 가르치고, 부인은 갓 시집왔을 때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바람직한 행동규범으로 음란한 말을 하지 말 것(언어)과, 절도 없이 울거나 웃지 말 것(행동), 산대와 만석놀이를 구경하지 말 것과 웃놀이와 쌍륙(雙陸)치기를 하지 말 것(연희와 놀이) 등을 거론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여성을 '정숙하고 검소하면서도', '효순과 화목을 실천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일방적 남성위주의 교육의 필요성에서 여성에게도 생활 속의 작은 예절인 '사소절'과 가정교육의 필요성 강조하고 있다. 즉 남자를 가르치지 않으면 자기 집을 망치고, 여자를 가르치지 않으면 남의 집을 망치며, 미리 가르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죄이며, 고식적인 은애(恩愛)만을 베풀면 무궁한 환해(患害)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의 자녀된 자들이 자기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반드시 금수가 될 것이데 어찌 두렵게 생각하지 않으랴?"고 하여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우선 이덕무는 "훈민정음은 자음과 모음의 반절이나 초성, 중성, 종성과 치음, 활음의 청탁과 자체의 가감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 비록 부인이라도 그 상생상변하는 묘리를 밝게 알아야 한다."고 한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여성들도 훈민정음과 같은 단순한 문자 이해 뿐만 아니라, 글자의 생성원리까지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당대에는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여성에게 문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는 점에서 이러한 이덕무의 신선한 발상은 돋보인다.

또한 “제사의식을 밝게 읽히어 제상에 음식을 차릴 때, 그 차례를 잃지 않아야 하고 그 의식은 책을 적어서 여자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여, 여성도 책을 통하여 제사의식을 알 것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이덕무는 당대 여성교육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부인들은 사서(史書), <논어(論語)>와 <모시(毛詩)>와 <소학(小學)>, 그리고 여사서(女四書) 정도를 읽어서 그 뜻을 알고 백가성의 출세 계보와 역대 국호나 성현의 이름자를 알면 족할 뿐이니 시사를 함부로 지어 외간에 퍼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sup>6)</sup>

이러한 <소학>과 <사기>류의 저서에 대한 독서의 중요성은 이덕무의 <양열녀전>에서 송화현 열녀 이씨가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그의 고모에게 양육되었고, 이씨는 <소학>, <사기>를 모두 읽었다는” 기록에서도 엿보인다. 이덕무는 이와 같이 여성들의 교육에 관심을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은 남녀평등에 입각한 교육관을 보이고 있지 않다. 즉 당대 유행하던 패관소품과 같은 소설에 부정적인 견해를 지닌 그는 여성의 시부와 같은 창작활동에 대하여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이덕무는 “언문으로 번역한 이야기 책은 탐독해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책의 내용들이 거의 투기하고 음란한 일에 관계된 것이므로 부인의 방탕함이 혹 이것에 연유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번역된 가곡은 내용이 염려(艷麗)하고 유탕(流盪)하기에 외우지 말라”고 하여 가곡류의 문학 작품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그의 문학관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덕무는 당대 여성도 역사서, <논어>, <모시>, <소학>, <여사서> 정도는 읽어야 한다고 생각함으로써 여성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던 사실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여성에 대한 교육관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언문편지를 지을 때에는, “말을 분명하고 간략하게 하고, 글자는 반드시 또박또박 고르게 써야지, 두서 없는 말을 장황하고 지리하게 늘어 놓음으로서 남들을 싫증내게 해서는 안된다.”<sup>7)</sup>고 하여, 자신의 뜻을 간단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서간문을 작성하고 글씨체를 반듯하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전대의 성호 이익이 여성은 “조석공궤(朝夕供饋)와 봉제(奉祭) 및 접빈(接賓)의 예절이면 족하다”<sup>8)</sup>고 한 것과 비교해보면 진일보한 면이라고 할 수 있다.

### 3.3. 근대 사회로의 이행기에 따른 가정경제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이덕무는 중세사회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따른 가정생활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그는 “부드럽고 정숙함은 부인의 덕이요, 부지런하고 검소함은 부인의 복이다(柔貞婦人之德 勤儉婦人之福). (<부의>1-성행)”라고 하여 근면과 검소함을 여성의 주요 덕목으로 꼽는다.

그러나 선비의 아내일지라도 생활이 곤궁하면 여성이 노동을 통해 가정경제를 유지해 나가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길쌈을 하고 누에 치는 일이 본래 부인의 본업이거니와, 닭과 오리를 치는 일이며 장.초. 술.기름 등을 판매

6) “婦人當略讀書 史論語毛詩 小學書女四書 一通其意識 百家姓出譜係 歷代國號聖賢 名字而已 不可浪作 詩詞傳播外間”, <사소절>, ‘부의’ 중 ‘사물’

7) 이덕무, <사소절> ‘부의’ 중 ‘사물’.

8) 이익, <성호새설>, 권상, ‘부인지교’.

하는 일이며, 대추. 밤.감. 석류 등을 잘 저장했다가 적기에 내다 파는 일이며, 홍화. 자초. 단목. 황벽. 검금. 남정 등을 사서 쌓아 두는 일은 부업으로 무방하다.”(<사소절>제7, 부의2,사물)

여기에서 방적과 양잠은 부인의 본업이며, 가축사육과 된장이나 간장, 식초, 술을 만들거나 기름을 짜서 파는 일을 부업이라고 하며, 가정경제에서 여성의 일정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상공업이 강조되기 시작한 당대의 사회적 현상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는 여성이 담당하는 노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sup>9)</sup>에서 여성의 경제적 역할은 중요하다. 이덕무는 <사소절>에서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근면·검소하되,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생활인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여성의 지나친 금전 추구를 경계하고 있다.

“돈놀이 하는 것은 더욱 더 현숙한 부인의 일이 아니다. 적은 돈을 주고 많은 이익을 취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의롭지 못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만일 약속 기일을 어기고 상환하지 않으면, 가혹하게 독촉하고 악담을 마구 하게 되며, 심지어는 여비로 하여금 소송케 해서 그 일이 관청 문서에 기재되게 되어 채무자가 집을 팔고 받을 파는 등 도산하고야 마니, 그 원성이 원근에 파다하게 되며, 형제 친척 간에도 서로 빚을 얻거니 주거니 하여 오직 이익에만 급급할 뿐, 화목하고 돈후하는 뜻은 잃게 되는 것이다.내가 볼 때 돈놀이 하는 집은 연달아 패망하니, 그것은 인정에 가깝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사소절>제7,부의2,사물)

당시 부인들이 가정경제의 범위를 벗어나 ‘이자놀이,고리대금업’ 등을 하면서, 이식을 통한 경제운용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고 그 부당성을 논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전곡과 포면을 다룰 줄 모르는 것은 집안을 망칠 징조다. 그러므로 돈과 곡식을 내고 들일 때는 반드시 장부에 기록하여 빠짐없이 가장에게 보이고 남거나 빠뜨림이 없게 해야” 한다고 하여 금전출납시 가계부를 작성할 것과 금전출납부를 통해 계획적인 가정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 이런 점은 유의해야 하는데, “부인이 남에게 베풀어 주기를 즐긴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그렇다고 인색하라는 말은 아니다. 베풀어 주기를 즐기는 것은 비록 남에게 칭찬을 받는 일이지는 하나 가장이 맡긴 재물을 마구 없애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따라서 그는 “부지런하고 검소하지 않아서 조상의 유업이 한 부인의 손에서 없어지는 일이 왕왕 있는데 어찌 두렵지 않은가? 그러므로 부인의 인색함은 그래도 말할 거리가 되지만 부인의 사치함은 말할 거리조차 못된다.”라고 하여 근검절약하는 경제생활과 합리적인 경제생활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 4.맺음말

이덕무는 선비로서 소박하고 원리원칙에 입각한 인생관에 따라 선비가 바른 몸가짐을 가지기 위하여 생활속의 작은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하여, <사소절>을 저술하였다. 그는 <사소절>의 창작 목적은 풍속을 바로잡고 남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정의 법칙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소절>이 <청장관전서 소재본>,<규장각 소재본> 이외에도 철종 연간에 출판된 <최성환 편찬본>,<1870년에 나온 <도택희 역본>, 1916년 백두용이 편한<현토

9)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는 여성이 담당하는 노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여성은 생산 노동에서 분리되어 소비 중심의 가사 역할만 담당하게 되었다.여성은 가사의 전담, 남성은 사회적 생산의 전담이라는 성별분업이 고정화하게 된 것이다.결국 자본주의 사회는 여성에게 기본적으로 노동자로서의 위치를 두면서도 성별 분업을 통해 가사의 전담자로 묶어 두어 이중 노동을 부담하게 되었다”.송지현,1995,다시 쓰는 여성시대,평민사,서울,p.30.참조.

사소절>, 1926년 하성재가 편한 <사소절지절> 등으로 출판되었다. 이것은 이덕무의 창작 의도와는 달리 시대가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간행되어, 많은 독자층에 읽혔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사소절>은 당대의 사회풍속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부의’편으로 여성들의 생활지침서이다. ‘부의’편은 남성이 저술한 여성교육서란 점에서 이덕무의 여성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덕무는 조선 후기 사가 중에서도 특히 여성에 대한 관심을 <열녀전>에서부터 <사소절>까지 다양하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이덕무가 지닌 여성인식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사소절>에 나타난 이덕무의 여성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덕무는 여성에 대한 인식의 틀을 이중적인 잣대로 파악하고 있다. 즉 여성의 위치를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가할 때와 대사회적 관계속에서 여성을 파악할 때에 각각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선 가정의 범주 안에 안주한 여성들에 대한 이덕무의 인식은 ‘여성에 대한 인간성의 긍정’이라는 점에서 당시로서는 진보적이고 과격적이다. 그는 여성에 대한 기존의 가치관인 천존지비설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의 태도는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당시에 남녀, 부부관계를 근원적으로 평등하게 바라보고 있다. 기존의 상하, 수직관계였던, 부부, 고부 관계의 설정에 비해, 이덕무는 지배 권력의 중심에서 소외 당한 계층인 여성에 대하여 가정 안에서 정당한 위치를 부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시각의 지평은, 나아가 당대 사회에서 부당한 사회적 편견에 처한 소수계층인 서얼,노비의 사회적 처우 개선과 축첩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가정의 틀 안에서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사대부인 남성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된다. 이덕무는 여성들도 훈민정음과 같은 단순한 문자 이해 뿐만 아니라, 글자의 생성원리까지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대에는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여성에게 문자교육,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사대부가의 여성들이 읽던 <내훈>이나 <여사서(女四書)> 등 뿐만 아니라 <소학(小學)>,<논어(論語)>와 <시경(詩經)> 등을 읽고 그 뜻을 실천할 것이 중요하다고 이덕무는 언급하고 있다. 이 때도 가정에서의 어머니, 며느리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전이나 역사서 등을 읽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성의 긍정, 여성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는 여성의 시선이 집안의 울타리를 벗어나 대사회적으로 향할 때, 이덕무는 보수적인 지배층의 남성논리에 따르고 있다. 정치, 문벌, 관직에 대한 여성의 대사회적 관심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근본적 인격,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여성을 가정 내의 범주 속에서만 인식하려고 한 것이, 이덕무가 보여준 인식 변화의 한계라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의 틀은 가정 내에서의 <논어><시경> 등의 경전에 대한 여성교육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한편, 여성이 시사(詩詞)를 지어 외부에 알리는 문학 창작 활동을 금하고 있고, 패관잡기류의 소설에 대한 독서를 금하고 있는 점과 연계된다. 이것은 남성인 이덕무가 지닌 한계성인 동시에, 근대로의 이행기에 처한 어쩔 수 없는 시대 상황의 산물이라고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중세사회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따른 가정경제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비록 선비의 아내일지라도 생활이 곤궁하면 여성이 노동을 통해 가정경제를 유지해 나가야 하며, 방적과 양잠은 부인의 본업이며, 가축사육과 기름짜기 등은 부업으로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것은 가정경제에서 여성의 일정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상공업이 강조되기 시작한 당대의 사회적 현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근면하고 검소할 것과 지나친 낭비를 경계하며, 근검절약하는 경제생활과 합리적인 경제생활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금전출납시 가계부 등 금전출납부 작성을 통해 계획적인 가정경제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이덕무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사회경제사의 변화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긍정적인 여성상을 그리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덕무는 <사소절>에서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정숙하고 검소하면서도, 효순과 화목의 전통적인 덕목을 갖추고,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면하고 생동감 있는 생활인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가정경제의 범주를 벗어나, 대사회적인 경제적 대응 논리로 당시 부인들이 ‘이자놀이, 고리대금업’ 등을 하면서, 이식을 통한 경제 운용을 모색하는 것은 지나친 금전의 추구라고 경계하고 있다. 물론 ‘이자놀이, 고리대금업’ 등은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가정경제 안에서는 여성의 생산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반면, 여성의 경제적 활동은 그 범주를 집안 내에 국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하여 이덕무의 <사소절>에 대한 여성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그의 열녀전, 여성 관련 시를 이해하여 이덕무 문학의 전체를 조망하는 한 시각을 열어 보고자 한다. 나아가 박지원을 비롯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여성관을 조망하고자 하는 작업을 지속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이덕무, <청장관전서>, 국립중앙도서관.
- (2) \_\_\_\_\_, <청장관전서>, 민족문화추진회, 1980.
- (3) 소혜왕후, <<내훈>>, 서울대 규장각 소장
- (4) 송시열, <계녀서>, 국립중앙도서관.
- (5) 김진백, 1991, “<사소절>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유봉호, 1975, “이덕무의 교육과 아동교육론”, <<논총>>, 26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 (7) \_\_\_\_\_, 1976, “<사소절>연구”, <<논총>> 27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 (8) \_\_\_\_\_, 1978, “이덕무의 부녀교육론”, <논총> 32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 (9) 이상교, 1983, “<내훈>과 <사소절>을 통해서 본 조선시대 여성교육내용의 일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이화형, 1994, <<이덕무의 문학연구>>, 집문당, 서울.
- (11) 송지현, 1995, 다시 쓰는 여성시대, 평민사, 서울.
- (12) 정민, 2000, 한서 이불과 논어 병풍, 열림원, 서울